

21C 한국 경제에서 IT 벤처기업의 역할과 의무

(주)아이티벤처 신동협

1990년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IT와 인터넷 혁명은 전세계에 신경제의 시작을 알렸고,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우리나라는 IMF시대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그 동안 취약했던 우리의 경제 상황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IMF 이후 정부는 그 동안의 대기업 및 재벌 위주에서 탈피, 중소기업(특히 IT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으며, 사회의 분위기와 대기업 및 대학에서 창업의 길로 뛰어들어 많은 기업가 및 연구원들이 노력의 결과 벤처기업의 수는 2001년 7월 현재 9,894개로 성장하여 2,042개에 불과하던 98년 대비 5배가 증가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IMF극복과정에서의 성장원천으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었고,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미래가치와 가능성이란 새로운 투자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시장을 크게 활성화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기술혁신, 고용 구조의 유연성, 수익의 공평분배, 기업문화혁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재벌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IT 중소, 벤처 기업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혁명과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경제가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한편으론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양적 팽창은 많은 문제점도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묻지마 투자'로 대변되는 코스닥의 거품 현상은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였고,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에 기반하지 않고 벤처투자열풍 등 외적요인에 편승한 창업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으

며 일부 벤처경영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근본적인 벤처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불신풍조마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코스닥 등 자금시장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모델이 약한 창업초기기업이나 인터넷닷컴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도 2005년까지 4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하고 자금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본의와는 달리 내실을 다지지 못해 자생력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벤처 육성은 아무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도 기술과 창의력이란 토대 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벤처기업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그 동안 우리 벤처 산업 및 기업들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과 벤처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살펴보면 IT 벤처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인한 장기 침체 가능성, 내적으로는 그 동안 진행된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그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조정 이후 기존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21C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어떤 산업이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산업이 바로 IT 산업이다. 이미 국내 IT 산업은 IT 벤처기업의 맹활약 덕택에 지난 98년 이후 평균군 20.7%씩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GDP 비중이 11.8%까지 제고됐다. 수출면에서도 IT 산업은 지난해 전년대비 27.9% 증가한 512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29.6%에 이르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IT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확인 기업의 50%, 코스닥 등록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체 벤처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고용비중도 급상승해 98년말 1.47%(벤처 고용 인원 누계 7만 1000명)이던 것이 99년말 3.05%(17만 3000명), 지난해 11월말 5.97%(34만 6000명)로 커졌다. 벤처 1개사당 고용규모도 99년 35명에서 지난해 37.1명으로 증가했다.

즉, IT 벤처기업이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중시하여 IT 벤처기업의 제2도약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기반의 확대, 기술인력 배양을 통한 인력난 해소, 기술경쟁력의 강화, 수익모델의 개선 및 기업협력지원, 해외 진출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나 투자에 선행되어 IT 벤처기업이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벤처 창업의 초심을 돌아가 창의성 및 신속성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벤처기업문화'를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IT 분야의 경우 3개월 내 시장조사, 제품개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특히 IT 관련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기업을 작고 빠른 조직으로 만들어 벤처기업 못지 않은 생산성과 효율을 올리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둘째로 내부의 핵심 역량을 파악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이미 지금시장이 경쟁되어 몇몇 벤처기업 이외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때 필요한 전략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집중해야 할 분야 및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로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조사 결과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용화하지 못하는 비율이 46.1%에 달해 자금 및 인력의 낭비가 문제라고 한다. 이는 기술 개발의 '마케팅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력에 의한 기술 개발만 의존하지 말고 최종 소비자, 제휴 회사,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IT 산업은 우리 나라의 현실 빈약한 자원, 수준 높은 인적자본, 신기술에 대한 열정 등을 고려할 때 21세기 우리 나라 경제의 주도 산업이 될 것이며, 기술 주도형 IT 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IT산업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IT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21C 한국에 올바른 벤처 문화를 꽃피우고, 실질적인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매진할 때이다.

신 동 협



1989 조선대학교 졸업
1990~1992 (주)포스콘
1992~1994 (주)삼보데이터시스템
1994~1999 (주)메디스 정보기획실장
1999. 7 (주)아이터벤처 대표이사
E-mail: dhshin@itventure.co.kr
